

#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12-60
----------	---------

발의일자 : 2012. 10. 22.

제안자 : 박상구·김병진의원 외 18 명

## 1. 주 문

「서울 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경계인 제물포길은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약 40여 년간 양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화곡유통상가를 비롯한 주변지역 상권을 크게 약화시켜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에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공사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가 화곡동에 거주하는 약 30만 강서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서울 서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제물포터널」 공사를 서울시의 도시기반 사업 중 최우선하여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총 연장 23.9km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968.12.21 개통되었고, 여의도에서 신월 나들목에 이르는 8km 구간은 1988년 9월에 제물포길로 명명되었다.

현재의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은 제물포길로 양분되어 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44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제물포길로 인한 강서·양천지역의 지역단절은 낙후된 생활환경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서울서부권 발전에도 악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서울 서부지역의 동서방향 주요교통축인 경인고속도로와 제물포길은 과도한 교통량 및 차로수 불균형으로 평균속도 15.9km/h에 불과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완료 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인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제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서울의 국제도시경쟁력 강화와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강서·양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하여야 할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임이 분명해 졌다.

다행스럽게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11월에 서울 서남부지역 도로망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시의회 정례회의시 연장 7.53km, 사업비 총 4,813억 원의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6개월 후에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약 1년 후인 2011년 7월에는 실시협약에 착수하였으나, 시의회 승인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제물포길과 연접한 강서구 화곡동에는 단절된 고속도로로 죽은 상권이라 불리는 화곡유통상가가 있어 터널 사업 발표에 상인들은 환호하였고, 약 30만 화곡동 주민은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본 사업을 심의하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적정성 판단,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자사업 채택에 대한 타당성 인정,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적격성과 타당성 모두를 거쳐 서울제물포터널사업을 승인하였음에도, 일부 이견이 있다하여 사업을 표류시키는 것은 시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이 보는 시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강서구 의회는 57만 강서구민의 열망을 담아 서울제물포터널사업이 시의회의 승인한 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제물포길을 서울 국제경쟁력 강화와 강서·양천지역을 포함한 서부수도권 지역의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승인안대로 「서울 제물포 터널」 사업에 조속히 착수하고, 약 40년이 넘도록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라.

2. 터널 지상 일부 구간은 그동안 겪어 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라.

2012. 10.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의원 일동**